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예방교육의 융·복합 효과에 관한 연구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김연정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f Effect of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Acquir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erformed :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Yeon-Jung Kim

Dept. of Nurs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충남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예방 교육이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전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지역 초등학생 1,167명이며 수집된 자료 중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SPSS Windows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심리적 변화는 주관식 문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Z=-26.109, p<.01$), 안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장애인 강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을 넘어 감사·존경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인 강사가 진행하는 장애예방교육은 안전문화 확립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인 강사, 장애예방교육, 초등학생, 자기효능감, 안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by spinal cord injury lecturer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1,167 students participat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Wilcoxon signed-rank test by SPSS 22.0 program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was a 40minutes, program composed of cause of disability, watching cases of accidents, story of disabled lecturer.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elf-efficacy($Z=-26.109, p<.01$) and awareness for the disabl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by disabled lecturer had a positive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 the program should be expanded for children.

Key Words : Disabled lecturer,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Safety

* 본 논문은 2015년 충남장애예방교육센터에 의하여 지원된 연구를 일부 발췌함.

Received 26 March 2016, Revised 26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Yeon-J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Email: yjkim00@kor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장애의 90.5%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며, 이중 35.4%는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특히,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장애는 아동 개인과 가족에게 상실감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보상제공과 의료비 지급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미래의 성인으로서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회 전체가 아동들의 안전과 장애예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2].

우리나라는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 이후 아동 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 안전사고의 비율은 전체 안전사고의 37.4%로 미국의 30.2%, 호주의 12.4%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4]. 특히 초등학교는 활발한 신체적 기능에 비하여 주의력과 안전의식이 미숙한 시기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과 학교 시설 및 환경의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 이로 인한 후천적 장애의 발생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안전사고발생 및 장애 예방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들은 마스크와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과 기침예절 등 전염성질환 예방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높은 반면 사고예방에 대한 실천정도는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5]. 초등학교 시기의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성인기 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학습하고, 행동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6]. 특히 발달 단계 상 초등학교 학생들은 논리적인 가정이 가능해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7].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안전생활을 위한 지식, 태도를 습득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의 일부에서 교통 규칙과 질서, 공공장소 예절, 응급 처치, 안전사고 발생 시의 행동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8].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에게서 안전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강문정, 박영수(2004)[9]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

능감의 향상 없이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학습한 행동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한바 있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능력으로[10]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안전생활에 대한 실천행동이 증가하므로[7]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립재활원에서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실제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 장애인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강사들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장애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11].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으로 학습한 내용이 실천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예방교육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은 2005년도에 비해 약 53만 4천 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많은 인적, 경제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 발생 원인의 52.9%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이며, 이중 44.2%는 안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제시하였다[1]. 장애 발생 후의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가중시키며, 인재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전 대책에 의한 예방이 가능하므로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 및 사고예방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2].

특히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안전사고 발생률은 미국이

나 호주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신체적 활동 증가에 따라 체육 활동 시의 부딪침이나 놀이터 기구 및 자전거 등에서 추락과 넘어짐에 따른 신체적 손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4] 더욱 주의가 필요한 연령대라고 할 수 있겠다.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을 학습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동은 발달단계 특성상 부주의하고 충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3,14].

미국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주요 장애 원인임을 인식하고 1986년 국가손상예방재단(The Think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Foundation)을 설립하여 뇌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Think First for Kid는 조기 교육에 의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15,16]. Zirkle (2005)는 3년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기반의 Think First for Kid 교육을 시행한 결과 안전지식과 안전행동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한 바 있다[16]. 우리나라의 국립재활원에서도 2005년부터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척수손상 장애인강사에 의한 실제 경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17]. 이와 같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생활화 하는 것은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18], 이를 위해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기능과 학습에 대한 동기가 충분한 초등학교 시기부터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교육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심

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도식화 하면 <Table 1>와 같다.

<Table 1> Study design

	pre-test	program	post-test
group	T1	X	T2

T1 : self-efficacy

X :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T2 : self-efficacy, psychological changes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장애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은 충청남도 천안, 아산, 당진 등 9개 도시의 4-6학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Respondent Characteristics

(N = 1,167)

Characteristics		N (%)
sex	male	586 (50.2%)
	female	581 (49.8%)
grade	4	255 (21.9%)
	5	554 (47.5%)
	6	358 (30.7%)

3.3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교육

본 연구에서 시행된 장애예방교육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을 수용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서 개발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장애의 원인과 유형, 뇌와 척수의 기능, 휠체어 장애인 강사 자신의 이야기, 다양한 사고 사례(교통사고·물놀이·놀이터) 소개 및 예방 동영상 상영이며, 1회 약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은 휠체어 장애인 강사 4인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교육 강사는 모두 사고로 인한 후천적 척수손상 장애인으로서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였다.

3.4 연구도구

3.4.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미국 Think First Prevention Foundation의 교육설문지를 기초로 박철우 등(2008)[19]이 제작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 장애인 강사가 협의를 거쳐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연구대상자가 놀이기구 사용 시 실천하고 있는 안전행동과 놀이에 적합한 보호 장구 착용,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사용, 무단횡단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 0-2점까지의 3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은 .86으로 측정되었다.

3.4.2 심리적 변화

‘교육을 받은 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라는 주관식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5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5년도 9월부터 12월 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충남장애예방교육센터에서 제공되는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교육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도우미가 휠체어 장애인 강사와 함께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와 특수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교육 전·후 연구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면 보상을 제공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불충분하게 작성되어 결과분석이 곤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167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2.0 program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장애예방교육 실시 전·후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비모수 대응표본 T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 실시 전·후의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는 주관식 항목의 답변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의 틀은 장애인 강사에 의해 장애예방교

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변화 내용을 분석한 김은수(2008)[13]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장애예방교육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교육 실시 전·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 평균 1.44(0.47)에서 사후 평균 1.91(0.27)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탑승 시 뒷좌석 착석, 철봉·정글짐·암벽타기 놀이 시 바닥의 안전장비 확인, 도로 횡단 시 운전자와 눈맞춤,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 보드 등의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탈 때 보호장구 착용, 무단횡단,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다이빙하기 전 키에 맞는 높이인지 확인 등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항목에 대해 교육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방교육이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Questionnaire	Pre	Post	Z(p)
	M(SD)	M(SD)	
Total self-efficacy	1.44(0.47)	1.91(0.27)	-26.109**
Sitting on the back seat in a car	1.38(0.75)	1.91(0.34)	-19.295**
Checking floor or shock absorber on playing field	1.38(0.75)	1.91(0.34)	-19.275**
eye contact with driver when walking across	1.67(0.60)	1.94(0.28)	-14.341**
Wearing helmet when riding bicycle	1.26(0.60)	1.85(0.40)	-23.911**
Wearing protective device when riding inline skate	1.62(0.58)	1.94(0.28)	-16.986**
jaywalking	1.35(0.73)	1.91(0.35)	-20.516**
Fastening seat belt when riding in a car	1.52(0.56)	1.92(0.31)	-20.347**
Checking floor and depth of water when diving	1.34(0.73)	1.90(0.37)	-20.831**

**p<.0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4.2 장애예방교육이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가 교육 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술한 문장을 김은수(2008)의 연구결과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한 태도, 장애예방 행동실천, 강사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 기타 등 5개 영역과 그에 따른 17개의 중심 의미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4.2.1 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한 태도

4.2.1.1 나도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 강사 선생님처럼 한 순간에 장애인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장애인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인줄 알았는데, 한 순간의 사고로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다.

4.2.1.2 안전의 중요성 수용

-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무엇보다 놀이터에선 반드시 안전하게 놀아야겠다.
- 이렇게 들으니 안전을 대하여 좀 더 기울여야 되고 앞으로는 안전하게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절대로 위험한 장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

4.2.2 장애예방 행동실천

4.2.2.1 효능신념

- 장애 예방 5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겠다.
- 교육을 받은 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사고 예방법을 꼭 기억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다.

4.2.2.2 실천의도

- 사실 뒷자리에 앉아도 안전벨트를 안 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안전벨트를 꼭 매야겠다.
- 작은 장난이 큰 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계단, 난간 등등 위험한 곳에서는 장난을 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4.2.3 강사에 대한 태도

4.2.3.1 감사

- 강사 선생님이 꼭 다리를 회복하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안전을 위해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2.3.2 안타까움

- 너무 안타까웠고 슬프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다.

4.2.3.3 존경

- 강사님이 장애를 이겨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하다.
- 장애관정을 받고 난 후 많이 힘드셨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요.

4.2.3.4 응원

-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열심히 하니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 강사님 앞으로 힘내세요. 파이팅.

4.2.4 장애인에 대한 태도

4.2.4.1 이해

- 장애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4.2.4.2 평등

- 우리도 부주의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장애인은 못 움직이고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보는 방법과 움직이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 장애인을 어디 부분만 다친 것이지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4.2.4.3 도와주고 싶음

- 앞으로도 장애인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겠다.
-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 꼭 지나가시는 장애인을 만나면 꼭 도와드릴 것이고, 먼저 이야기도 해드릴 것이다. 나 또한 사고 예방을 열심히 하고 커서도 꼭 봉사를 하고 싶다. 또 장애인 분들을 위해 열심히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드릴 것이다.

4.2.4.4 차별에 대한 후회

-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무시한 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4.2.5 기타

4.2.5.1 교육에 대한 권유

- 교육 잘 들었어요. 제 동생들도 이걸 알면 좋겠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알려줘야겠다.
- 다른 친구에게 권하고 싶다.

4.2.5.2 장애에 대한 두려움

- 너무 장애가 무섭다.
-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기엔 무섭다.

4.2.5.3 재미

-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4.2.5.4 좋은 경험

- 안전을 위해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수업을 받아 정말 좋은 기회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교육 실시 전-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 평균 1.44(0.47)에서 사후 평균 1.91(0.27)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각의 모든 하위항목에서도 교육 실시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철우 등(2008)[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안전생활에 대한 행동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7]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초등학생들은 안전교육의 형태에 있어 담임교사보다는 외부강사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20], 본 연구에서 제공된 장애예방교육은 장애인 강사가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간이 미래의 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고 의사결정함에 있어 목표지향적인 학습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21], 본 연구에서 시행된 교육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행동을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표행동을 실천하지 않아 장애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강사로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대리체험으로 인한 교육의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13].

연구대상자들의 교육 후 소감을 분석한 결과, ‘자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향상되고 안전의 중요성을 수용할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해야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강사에 대한 감사·존경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평등하게 대우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지원(2008)[18]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장애예방교육 후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불쌍하다’는 인식은 감소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공된 장애예방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소수이기는 하나 ‘장애가 너무 무섭다.’,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기엔 무섭다.’라는 소감이 보고되었는

<Table 4> Psychological changes after Program

Categories	Central meaning
attitude on the possibility of disability	realize everyone can be the disabled accept the importance of safety
the disability prevention	improve the efficacy belief improve the behavioral intention
attitudes on the disabled lecturer	thank you for education heartbreaking respect cheer
attitude on the disabled	understanding equality want to help the disabled regret for the discrimination
others	want to recommend this program to friends and families fear to disability interesting good experience others

5. 논의

초등학생은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보이는 시기이므로 교육을 통해 변화된 지식과 안전행동의 실천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데 문지원(2008)[18]의 연구에서도 ‘무섭다’라고 느낀 초등학교 학생이 교육 전 5.0%에서 교육 후 49.0%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장애예방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다양한 사고 사례 소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일부 학생들에게는 경각심을 넘어 두려움을 경험하게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부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효과적인 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개선시키고 사고율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19]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예방교육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공한 휠체어 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장애예방교육은 1회기/약 40분 정도 시행 되었음에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으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 형성하여 안전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넘어 인간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22] 본 교육을 통해 장애인 강사는 소득을 얻고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장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의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23]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ung-Nam disability prevention center.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Survey for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2011.
- [2] Miller, T., Romano, E., Spicer, R. “The cost of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and the value of prevention”, *The Future of Children*, Vol. 10, No. 1, pp.137-163, 2000.
- [3] W. M. Gal, K. S. Son,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safety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Journal of 2002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Conference*. pp. 37-42, 2002.
- [4] Consumer Safety Center, “An Analysis of Children safety accidents”, 2014.
- [5] S. J. Kim, S. O. Yang, G. H. Jung, S. H. Lee, “Lev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3, No. 13, pp. 407-415, 2007.
- [6] S. H. Kim, “Prediction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7] M. O. Chae, “A Structural Model for the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4 No.2, pp. 119-128, 2014.
- [8] Ministry of Education, “Elementary Curriculum Commentary II”, Textbook Co., Ltd. of Seoul, 1998.
- [9] M. J. Kang, Y. S. Park,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5, pp. 43-70, 2004.
- [10] Bandura, A. “Self - 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 215, 1977.
- [11] Disability Prevention Education Notice, http://www.nrc.go.kr/nrc/board/nrcHtmlView.jsp?menu_cd=M_03_02_01_01, 2015.11.
- [12] H. J. Beak, J. K. Kim, “Countermeasure of acquired disability prevention, *Health·Welfare·Poicy Forum*”,

pp. 70-81, 1999.

[13] E. S. Kim, "The psychological change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eived the disability prevention education from the disabled lecturer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8.

[14] K. M. Park, M. Y. Kim, E. S. Lee, S. M. Kwon, "The effects of a safety management program on safety accident-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1 No.2, pp. 220-228, 2010.

[15] About Thinkfirst, <http://www.thinkfirst.org/about-thinkfirst>, 2016. 03.

[16] Zirkle, Dorothy L. Think First for Kids (TFFK): "A longitudinal analysis of a school-based injury prevention curriculu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USA, 2005.

[17]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The evaluation of disability prevention project and Countermeasure of acquired disability prevention", 2008.

[18] J. W. Moon, "Analysis of effect of education for prevention of disorder :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kuk University, Seoul, Korea, 2008.

[19] C. W. Park, B. S. Lee, J. K. Lee, H. K. Park, M. H. Lim, S. H. Kim, H. J. Kim, S. W. Choi, S. S. Kim, "Effect of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on students' self-efficacy and practice-confidence in elementary school",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 32, No. 2, pp. 160-168, 2008.

[20] J. H. Park, S. Y. Kim, K. N. Lee, "Safety education status and needs based on the survey of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 focused on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city",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6, No .3, pp. 185-203, 2013.

[21] Y. S. Shin, S. H. Han, "Goal-directed learning and memory",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Vol. 16, No. 3, pp. 319-332, 2013.

[22] Woo-Ho Kim, Bo-Jun Seo, Jae-Moon Lee, "A

Study on the Parents' Recognition of School Enterprise Convergence by Type of Disabil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89-97, 2015.

[23] D. W. Kim, "Wheelchair tennis has ever fusion of classroom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exercise emotional and exercise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5-23, 2015.

김 연 정(Kim, Yeon Jung)



- 2004년 2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장애, 장애예방 및 정신사회재활, 외상후성 장애
- E-Mail : yjkim00@konu.ac.kr